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173-187
<https://doi.org/10.29212/mh.2020..116.1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한국의 도성방위체계를 집약한 연구서

백기인 저,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송영대*

1. 도성방위에 대한 이해

국가 단위의 전쟁에서 주요 목표는 다른 국가의 중심지를 점령하고 약탈하는 것으로, 이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의 중심지는 수도이며, 때문에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어진점 역시 수도라고 할 수 있다.

수도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최고 지도자 즉 왕이 국정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다.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상대국의 멸망을 목적으로 할 경우, 상대국 왕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

* 건국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다. 상대국 왕의 신변을 확보한다면 이를 담보로 하여 기존에 확보한 것 이상의 재물이나 영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혹은 왕을 교체하여 그 나라의 정치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왕의 신변 보호는 가장 중요한 방어 목표가 된다. 왕이 머무르는 수도 역시 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곳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수도는 국가 방어 전략의 중심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수도는 방어의 요지이기도 하면서도 국가 운영의 중심지여야 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보기 드물었다. 때문에 평소에는 왕이 국정을 펼치는 곳에 있다가, 유사시 왕이 거처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두고, 이곳에서 항전하거나, 적이 감히 쳐들어가기 힘든 먼 곳으로 대피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세계사에서도 수도의 함락은 곧 국가의 멸망 혹은 왕조의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 한국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국가의 방어 전략에서 수도는 언제나 중심지가 되었다. 수도 방어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이후 각 지역의 방어 전략 및 거점 방어와 국경 방어 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된 백기인 교수의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연구서는 이러한 도성방위에 주안점을 두고 저술되었다. 저자는 그동안 조선과 근현대의 군사사상의 분야에서 여러 연구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연구서에서는 저자 본인의 연구와 기존의 한국 도성방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집약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분량의 부록을 포함시켰다. 한국의 도성방위체계 및 그 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 권으로 응축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제2장, 제3장, 제4장이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제2장은 고대 삼국의 도성방위, 제3장은 고려의 도성방위, 제4장은 조선의 도성방위이다. 즉 한국사를 크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구분하여, 전근대의 도성방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서론에서는 도성의 구성 및 도성방어 변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마무리하였다.

2. 도성방위의 형성, 삼국시대의 도성방위전략

삼국시대의 도성방위전략과 관련하여 크게 삼국의 건국과 방위전략, 고구려와 백제의 천도와 도성방위에 대해 다루어졌다. 고구려·백제·신라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현재 그 왕도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방위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도성방위전략의 파악을 위해서는 군제를 분석해야 하지만, 사료적 한계로 인하여 주로 도성제를 통해 고찰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이 연구서에서는 도성이란 도읍(都邑)이라고 하는 왕도(王都)이며, 왕도 전체를 에워싸는 나성(羅城)이 축조되어야 도성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용한 점이지만, 사실이 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나성으로 대표되는 외곽성의 존재는 여러 도성에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제의 사비성과 고구려 평양성에 해당하며, 고려와 조선 또한 외곽성이 존재하였다. 다만 백제 초기 도성이나 고구려 초기 도성, 신라 도성에는 외곽성의 존재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외곽성은

도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순 있지만, 도성임을 구분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외곽성의 존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수도와 수도 외곽의 구분이라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 장에서는 도성방위라는 관점에서 외곽성이 존재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모두 포괄하여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각 국가의 역사 전개와 천도 혹은 수도 방어 사례를 바탕으로 도성방위 사례를 검토하였다. 삼국시대의 경우 기록의 한계 때문에 고고학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도성방위를 설명하였다.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천도가 고구려 국가성장기의 기본적인 도성방위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하였다. 주지하듯이 고구려는 졸본성(환인) → 국내성(집안) → 평양성(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각자의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고구려의 방어체계는 평지성과 산성의 2성 체제이며, 환인에서는 하고성자와 오녀산성, 집안에서는 국내성과 환도산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동천왕 때에는 동황성으로 피난성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내성·환도산성의 2성 체제에서 보조적으로 운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동황성은 기록에서는 “平壤東黃城”으로 나타나기 때문에,¹⁾ 그 위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목멩산(木覓山)이 고구려 때 황성(黃城)의 옛터라고 하였고,²⁾ 「대동여지도」에 보면 ‘黃城’이라는 지명이 평양 주변에서 확인된다. 때문에 애초에 ‘東黃城’이 아니라 ‘黃城’으로 파악하고 그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소위 동황성의 위치를 강

1)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13년.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平安道」 平壤府, 山川, “木覓山[在府東四里 有黃城古址 一名網城 世傳高句麗故國原王居丸都城 爲慕容皝所敗移居于此]”.

계(江界) 쪽으로 볼 경우, 백제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공격한 곳 역시 강계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평양지역을 동천왕 때부터 영유하였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고국원왕 때에는 평양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대성산성과 장안성 축조와 천도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백제 한성기의 도성으로 풍납동토성(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거론하였다. 또한 이를 방어하는 존재로 한강 이북의 아차산성과 한강 이남의 사성(산성동토성)이 축조되었다고 하였다. 책에서는 백제 최초 한강권에 도읍한 백제의 수도방위가 2개의 상대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침공을 당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성기의 백제는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었고,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웅진성은 나성이 없기 때문에 도성이라 하기 어렵고, 임시적인 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웅진은 사비 천도 이후로도 오방성(五方城) 중에서 북방성(北方城)이라는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³⁾ 또한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당시, 최후로 피난하여 저항한 곳이 웅진성이었다는 점도 상기할 수 있다. 웅진성은 금강이라는 자연 해자가 둘러진 요새로, 백제 문주왕은 국난의 위기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였고, 조선의 인조는 이괄의 난 때 이곳에 몽진하였다. 부여의 부소산성에 비해 방어에 더 용이하였다는 점에서 의자왕의 피난성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백제 사비기 방어체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신라의 경우 월성을 주로 왕성으로 보고 있다. 주지하듯이 경주

3) 『周書』 권49, 「列傳」 41, 異域上, 百濟.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

에는 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도성의 기준을 나성의 유무로 따지게 된다면,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가 정작 도성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경주는 분지형의 지형이며, 경주평야의 주변에는 명활산·성·남산·신성·서형산성을 축조하여 왕성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신라 왕경의 경우 조방제(條坊制)를 실시한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경주분지 내의 영역을 도성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삼국의 도성방위와 관련하여 제2절에서는 좀 더 심화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천도와 도성방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수도 평양성 방어전에 비중을 할애하여 당시의 전투 상황을 바탕으로 도성방위의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는 도성 자체의 방어와 함께 도성외곽방어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의 내·외선 작전을 병행하는 2선작전에 의한 수성전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나당연합군은 도성포위작전을 펼쳤지만, 고구려 내부의 내통이 있기 전까지는 난공불락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군사학적인 측면에서 평양성전투를 분석한 점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백제 멸망기의 전투 분석과 관련하여, 백제의 도성방어전은 전략적인 기습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치러졌고, 도성외곽방어를 위시한 지역방어에 치중하여 수도방어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사실 백제의 입장에서 당군의 공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바였기에, 나당연합군의 의표를 찌르는 전략이 적중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백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양쪽의 대군을 상대해야 하였고, 당시 어떤 방향으로 쳐들어올지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방어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백제는 나성의 축조와 사비도성 주변

성곽의 축조를 통해 도성방위체제를 철저하게 마련하였지만, 결국 다수의 군대 앞에서 중과부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고대사는 부족한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며, 사료의 일부 기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자들끼리 의견이 엇갈린다.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료의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되고 있지만, 새로운 자료가 나타날 때마다 기존 학설이 무너지고 새로운 학설이 세워지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고대사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한국고대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도성방위체제를 살펴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든다. 부여나 가야의 경우, 도성방위체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발해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가 남아 있다.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의 경우에는 중국의 도성 제도를 참고하여 도성을 축조하였으며, 주변의 여러 성곽을 통하여 도성방위체제를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발해사의 한국사 귀속 문제를 생각한다면, 발해 역시 우리의 역사로서 도성방위를 다루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후삼국시대의 태봉과 후백제의 경우에도 도성방위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태봉의 경우 철원도성의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기엔 어렵더라도,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후백제의 경우 전주의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으로 대표되는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위체제를 살펴볼 수 있다. 아무래도 삼국시대의 관련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하나, 발해와 후삼국시대까지 포괄하여 기술하였다면 더욱더 좋은 연구서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3. 도성방위의 정립, 고려시대의 도성방위전략

고려의 도성방위와 관련하여서는 고려의 건국과 북진정책 및 도성방위체제와 수도이전 전략에 대해 다루었다. 고려는 송약에 수도를 정하는 한편 건국 당시부터 평양을 중시하였다. 특히나 평양은 고구려의 옛 수도이자 북진정책의 거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삼국시대에 비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서 기록을 바탕으로 도성체제 및 방위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책에서는 고려 초기에 평양성 도성화 사업과 대동강 이북과 청천강 이남 지역에 대한 성곽 축조를 통하여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실제 전쟁의 사례를 들면서 서경(西京) 즉 평양이 북방의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사례를 밝히면 더 좋았으리란 생각이 든다. 거란의 제1차 침입 당시 고려 성종은 서경으로 행차를 하고 이후 안북부(安北府)까지 올라가서 거란에 대응하려고 하여 신하들이 만류하기까지 하였다.⁴⁾ 이러한 기록은 고려가 거란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왕이 직접 서경에 가서 대적할 정도로 평양이 북진의 중심지였음을 밝혀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고려는 삼국에 비해 궁궐과 수도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하여 당시 성곽과 성문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경의 도성 건설은 현종대의 나성 축조를 계기로 궁성-황성-나성으로 연결되는 3중성 방어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고려는 성곽별로 규모와 문의 수에 대한 기록까지 남아 있으며,

4) 『高麗史』 권3, 「世家」 3, 성종 12년 윤10월. “閏月 丁亥 幸西京 進次安北府 聞契丹 蕭遜寧攻破蓬山郡 不得進乃還 遣徐熙請和 遜寧罷兵”.

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연구에서 도성 체제와 관련되어 살펴볼만한 표를 인용하거나 저자가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간편하게 보기 좋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큰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하였으면 더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성 방위 병력을 문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사원이 중요한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삼국시대의 경우에서도 도성에 여러 사원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려에서의 도성방위체제와 관련하여 실제 수성전으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 홍건적의 난 당시 개경 전투의 경우가 개경성을 배경으로 한 사례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고려사』 기록을 바탕으로 성곽 포위와 기습작전, 진내 공성작전 및 성곽 회복작전 등을 펼치면서 고려군의 도성 수복전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도성방위체제 마련 결과가 실전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도성 방위를 제대로 펼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제1차 전쟁에서는 요격을 하고 협상을 통해 영토를 확보하였다. 거란의 제2차 침입 당시에 현종은 나주로 몽진했으며 개경성이 함락되었고, 제3차 침입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 인하여 거란군이 개경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었다. 몽골과의 전쟁에서는 강화도로, 홍건적의 침입 당시에는 안동으로 몽진을 가는 등 피난을 통하여 왕의 신변을 보호하였다. 즉 도성방위체제는 국가 단위의 큰 전쟁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피난을 통한 방어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고려의 사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조선의

사례에도 해당한다. 피난을 통해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였다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계속 확인된다는 사실에서, 이 또한 방어체제의 일환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고려의 치소성 전략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한 성을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거란과 여진, 몽골과의 싸움에서 활용된 성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전쟁 양상을 보였고,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각 전쟁에서 활용된 성을 지도에 표시하여, 적군의 공격 루트에 따른 고려의 방어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은 여기에서 제시된 성을 바탕으로 추후 전쟁 양상의 분석에 있어서, 적군의 공격 루트가 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고려가 2차, 3차 방어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였고, 실전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려의 수도 이전 전략과 관련하여 몽골과의 전쟁에 있어서 강화천도와 개경으로의 환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당시의 천도는 긴급한 전시의 필요와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강화도에 고려는 내성·중성·외성의 3중 구조로 된 성곽을 축조하여 도성제도를 구축하였지만, 몽골의 요구로 내성과 외성을 파괴하게 되었다. 각 성의 구체적인 위치를 오늘날의 지명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역시도 지도를 첨부하여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몽골과의 화의가 성립된 이후 고려 조정은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었다. 개경 환도 이후의 상황과 남경(南京) 즉 양주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설명을 주로 하였다. 고려 말기 한양 천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를 서술한 점은 좋지만, 개경 환도 이후 개경의 도성방위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게 생각된다.

4. 도성 방위의 발전, 조선의 도성방위전략

조선의 도성 방위에 대해서는 조선의 한양 정도, 조선 초기의 도성방위, 조선후기의 도성방위체제에 대해 다루었다. 조선의 한양 정도는 주로 『태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상황을 기술하였다.

조선 초기의 도성 방위는 한양도성 건설과 조선 초 도성방위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저술되었다. 한양 도성 건설에서는 이인도감과 도성조축도감을 두어 한양도성이 어떤 식으로 축조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전국의 인력을 동원하여 각 구간을 나누어 담당하여 축조하였으며, 5부(部)의 총 52방(坊)에 방명표를 세우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의 명칭도 기입하였다. 조선은 삼국이나 고려에 비해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 초 도성방위전략은 조선 초의 군제개혁을 바탕으로 알 수 있다. 사병 혁파 이후 모든 군대를 국가의 공병(公兵)으로 흡수하고 편제하였다. 태조부터 세조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개혁의 조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또한 각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변화 양상 및 의의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

다. 특히나 도성방위와 관련하여 군제개혁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중앙의 군제와 함께 지방군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북방의 몽골이나 여진의 공격과 남방의 왜에 의한 공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왜구와의 싸움과 관련하여 도성 방위의 차원에서 경기 수군의 존재에 대해 다루었다. 북방에서는 익군체제(翼軍體制)를 마련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즉 양계에 설치한 익군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마련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조선 초의 국가방위 개념은 국경지역에서의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단계적으로 요해처(要害處)에서 병참선이 신장된 적의 전략을 약화시켜, 도성방어단계에 이르러서는 적의 전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략적 관건이라 지적하였다. 즉 국경지역의 1차방어선과 이에 연하는 2차 방어선, 도성지역의 3차 방어선의 3단계연결선의 단계적 방어 전략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국경지역 방어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국경지대에 병력이나 군수물자가 집중되었고, 이 때문에 양계 후방의 국방태세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적과의 전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련된 방어 전략이었지만, 대규모 병력이 침공하는 상황에서는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기존의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방어 전략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도성방위체제에 대해서는 북한산성과 도성외곽 축조 및 삼군문 도성수비체제의 형성을 주로 살펴보았다.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의 조정은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하였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고, 이곳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여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에서는 강화도

의 요새화를 이루면서 북한산성을 축조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북한산성 축조에 대해 깊게 다루면서 그 계기와 축조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북한산성 축조를 바탕으로 조선 초기와 후기의 방위 전략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종래에는 강화와 남한산성 등을 중시하던 보장지(保障地) 중심의 도성방위전략이, 도성외곽의 관방 외에 도성과 북한산성 축조를 통해 ‘도성 자체 방어’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성과 북한산성 축조를 통해 자기 보존적 방어 전략을 펼쳤다. 도성을 모성(母城), 북한산성을 자성(子城)으로 하는 이중방어수단을 확보하여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북한산성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 후기의 방어 전략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군제를 바탕으로 방위전략을 설명하였다. 숙종대의 북한산성 축조와 함께 금위영을 추가 설치하여 도성방위의 전략적 운용성을 강화한 오군영체제를 완비하였다. 군제 개편과 군액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제변통절목」으로 훈련도감 개편 및 금위영 설치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후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위영을 중심으로 삼군문에 의한 도성수비체제를 이룩했다고 지적하면서 「오군문개군제절목」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도성방위체제의 완비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서적들을 간행하면서 전략전술적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는 국토방위전략이 최초로 국경 중심에서 보장처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도성 방어 중심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서적으로 제시한 것이 『수성기요(守城紀要)』이다. 도성수비 편성을 도성수비체제 운영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각 수성 작전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이 『수성기요』의 사료적 가치를 중시하여 이 책의 말미에 원문을 제시하여,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연구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맺음말을 통해 잘 요약되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 독자는 맺음말을 먼저 읽을 것을 추천한다. 맺음말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으로 구분하여, 각 국가별·시대별 도성방위체제가 어떠하였는지 그 양상을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시대별 도성방위체제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서의 방법론은 군제 연구를 통해 도성방위체제를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의 적용은 사실상 고려와 조선의 사례에 국한되었다. 신라의 군제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고려나 조선에 비해서는 다소 소략한 편이며, 고구려와 백제의 군제에 대한 내용은 신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때문에 삼국시대의 도성방위체제는 고고학 자료를 참고하여 도성제를 통해 고찰하며, 역사적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시의 양상을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국 도성방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저자는 이 점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록하며, 독자들이 이를 보고 더 많은 연구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배려를 하였다. 특히나 도성방위와 관련하여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용어해설을 설정하였다는 점 또한 주요한 배려에 해당한다. 특히 수성전과 관련된 용어들을 서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해 놓았다.

저자가 참고한 서적과 논문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책의 주석에서도 이미 주요 논의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를 표시해 놓았는데, 참고문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두었다. 색인 작업도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독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마련해 놓았다. 더구나 조선 후기 방위전략과 관련하여 『수성기요』의 원문을 영인본의 형태로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바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도성방위는 시대별,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도성방위라는 주제로 엮어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더구나 책에서는 다양한 학설들을 최대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가 곳곳에 배치되었다. 부록은 전체 분량의 1/3을 차지한다. 이 또한 연구자들에게 있어 이 책이 연구서의 가치가 있음은 물론,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저자의 배려가 작용한 부분이다.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변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며, 이 연구서를 통해 수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